제 1 교시

#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 어니젠가 : 어느 사이엔가.
* 싹기도 :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 가제 : 갓. 방금.
* 수라 :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바닥'은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공간이다.
② '쓸려 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③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서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⑤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나'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표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② ㉡의 '제 힘으로'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③ ㉢의 '두려운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④ ㉣의 '한가지로 행해지는'이라는 표현에서, 배설하고 먹는 행위는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⑤ ㉤의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통시에 대한 섬사람들의 인식이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함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서정시의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군.
②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군.
③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나)는 특정 지역 생활 양식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군.
④ (가)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하는군.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진술된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군.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A]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인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5.**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분에게 추천합니다. |
|---|

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7.**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9.**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②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③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④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⑤ ⓔ: 독립적인 존재인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일은 박씨가 계화를 불러 왈, "대감께 여쭐 말이 있으니 아뢰거라."
하니, 계화 명을 받아 공께 아뢰니, 공이 즉시 ㉠내당에 들어가 묻기를, "무슨 말인지 듣고자 하노라."

박씨 아뢰기를, "명일 종로에 각처 사람들이 말을 팔려고 모였을 것이니, 노복에게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하여 모양이 볼 것 없는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하소서."

공이 들음에 허황하나 자부가 범인과 다름을 알고 즉시 허락하며 근실한 노복들에게 분부 왈, "명일 종로에 가면 말 장사들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하나를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라."
하며 돈을 주니,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나와 서로 이르되, "대감께서 무슨 연고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이나 주고 사 오라 하시는고?"
하고 서로 의혹해 하며, 이튿날 삼백 냥을 가지고 ㉡종로에 나가 본즉 과연 여러 말이 있더라.

[A]
그중에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골라 임자를 찾아 값을 물으니 임자가 말하기를, "그 말 값은 닷 냥이오. 좋은 말이 많거늘 어찌 저런 용렬한 것을 사려 하시오?"
노복이 대왈, "우리 대감의 분부가 그러하오."
하니 장사 왈, "그러면 닷 냥만 내고 가져가시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우리 대감께서 삼백 냥을 내고 사 오라 하시니 삼백 냥을 받고 주시오."
한데, 장사 왈, "본값이 닷 냥인데 어찌 비싼 값을 받으리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대감 분부대로 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받으시오."
하며 주거늘 장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거늘 노복이 마지못해 억지로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고 돌아오더라.

노복이 대감에게 말을 사 왔다 아뢰니, 공은 즉시 자부를 부르니, 박씨 노복에게 말을 가져오라 하며 말을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말 값이 삼백 냥을 주어야 쓸 데 있거늘 무지한 노복이 말 장사에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도로 주거라 하옵소서."

공이 이 말을 듣고 박씨의 신명함을 탄복하고 즉시 ㉢외당에 나와 노복들을 불러 꾸짖기를, "너희들이 말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백 냥만 주고 왔으니 상전을 기망한 죄는 나중에 중치하려니와 감춘 돈은 말 주인에게 주고 오라. 만일 지체하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하니 노복들이 사죄 왈, "이같이 명백하시니 어찌 기망하오리까? 과연 대감 분부대로 말 장사에게 삼백 냥을 준즉 말 값이 닷 냥이라 하고 받지 아니하옵기로 억지로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이렇듯 신령하옵시면 소인들의 죄는 만사무석이로소이다."
하고 즉시 ㉣종로에 나가 말 장사를 찾아 돈 이백 냥을 주며 왈, "이 사람아,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니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
하며 이백 냥을 억지로 맡기고 돌아오더라.

박씨 말을 기른 지 삼년에 준총(駿驄)이 되어 걸음은 비호(飛虎) 같은지라. 박씨가 공께 왈,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그 말을 가져다 ㉤사신 오는 길에 놓으면 사신이 사려 할 것이며, 값은 삼만 냥이라 하고 팔아 오라 하소서."

[B]
공이 듣고 자부 말대로 노복을 불러 분부한 후 사신 오기를 기다리더라.
과연 그날 사신 나오니, 사신이 말을 보고 파는가 묻거늘 노복 왈, "파는 말이니다."
사신이 또 묻기를, "값을 얼마나 받으려 하느냐?"
노복이 답 왈, "값은 삼만 냥이로소이다."
사신이 대희하여 삼만 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가더라.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께 말 팔던 사연을 낱낱이 아뢰고, 공은 삼만 금을 얻음에 가산이 부요하니 박씨에게 물어 왈, "삼만 냥을 받았으나 아지 못게라. 어떤 연고인고?"

박씨 아뢰기를, "그 말은 곧 천리 준총마로 조선은 작고 조만간 쓸 곳이 없으나, 사신은 준마를 알아보고 삼만 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갈 것이니 그런 고로 사신에게 팔았나이다."

공이 듣고 왈, "너는 여자이나 명견만리하니 진실로 아깝도다. 만일 남자였던들 보국 충신이 될 것을 여자임이 한이로다."
하며 탄식하더라. 박씨 무릎을 꿇고 왈, "소부의 원하는 바는 가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뵈옵고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돕고, 소부는 다만 유자유손하고 만수무강하오면 죽어도 무한이로소이다."
하거늘 공이 그 말을 들음에 못내 탄복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나)**

그녀는 늘 우하형에게 비변사 서리를 통하여 조보(朝報)*를 구입해 오게 하여 보는데, 대개 열흘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서 조정 일을 헤아리고 전관(銓官)*이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귀신같아 열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하형으로 하여금 다음 전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손을 써 평안도 물화를 긁어모아 정성으로 바치니, 그 효험이 십분 나타나게 되었다. … (중략) … 봉급이 점차 불어서 위로 섬김도 더욱 풍부하여 앞길이 날로 양양해졌다. 그리고 순차로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에 이르렀다.

우하형은 나이 칠십이 되어 집에서 삶을 마쳤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로하며,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으로 지위가 절도사에 이르렀고 고희 가까이 사셨으니, 당신이 보아도 유감이 없을 것이요, 자식들은 과히 애통할 것이 없소. 나의 일을 두고 말하더라도 여자가 지아비를 섬김에 자기 공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내 소임 역시 다한 셈이라 또 무엇을 슬퍼하겠소."
하고 겨우 장례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영감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내가 집안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큰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오. 나는 한 서모(庶母)에 불과하니 가정을 큰며느리에게 맡기겠소."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하고는 창고에 저장하고 농 속에 담아둔 재물을 기록하여 열쇠와 함께 내주었다.

큰며느리가 울며 사양하기를, "서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는지요.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으니 저희는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모님을 의지하겠어요. 집안일 모두를 예전같이 하고 싶은데, 서모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그녀는 큰며느리에게 기어이 집안을 맡겼다.

- 작자 미상, 「조보」 -

* 조보 :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여 반포하던 관보.
* 전관 :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11.**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계화는 박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짐작한 바를 공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공은 말을 사라는 박씨의 말을 듣고 한탄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③ 노복은 말을 사 오라는 공의 명을 받고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다.
④ 박씨는 노복이 사 온 말을 관찰하면서 자기 안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⑤ 노복들은 자신들이 돈을 감춘 죄가 드러나자 그 책임을 장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박씨가 공에게 요청한 바가 ㉡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에서 확인된다.
② 박씨가 ㉠에서 공에게 받았던 신뢰는 ㉤에서 타당성이 확인된다.
③ ㉡에서 노복들이 공에게 보인 신뢰는 ㉢에서 행해진 공의 꾸짖음을 거치면서 동요된다.
④ 노복은 ㉡에서 한 거래로 인해 ㉣에서의 행위를 해야만 했다.
⑤ 박씨가 ㉡에서의 사건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에서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1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임자와 [B]의 공은 모두 팔린 말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② [A]의 노복과 [B]의 사신은 모두 말을 사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③ [A]의 노복은 [B]의 사신과 달리 사려는 말의 진가를 알고 있다.
④ [B]의 사신은 [A]의 노복과 달리 상대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⑤ [A]에서는 임자가 받으려는 값대로, [B]에서는 사신이 지불하려는 값대로 말 값을 정했다.

**14.** (나)의 '그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보를 읽고 전관이 될 사람을 짐작했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② 공적 정보인 조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긁어모은 물화로 청탁을 하여 남편을 절도사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장례 중에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장례 후에는 집안을 챙겼다는 점에서는, 서모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남편의 사후 집안일 모두를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달리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다고 볼 수 있겠군.

**1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재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혜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에,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① (가)에서 '공'이나 '노복'이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발휘한 '박씨'의 모습에서, 고소설의 여성 독자가 소망하였던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그녀'가 '우하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을 가정의 융성으로만 발휘하였던 실재 여성의 모습이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박씨'의 말을 '공'이 따르고, (나)에서는 '그녀'의 말을 '우하형'이 따르는 데에서, 남성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여성상이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박씨'는 신이한 능력을, (나)의 '그녀'는 남다른 수완을 지녔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의 사회적 제한에 대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보국 충신이 될 만한 '박씨'가 유자유손을 원한다고 말하고, (나)에서 집안에 공로가 많았던 '그녀'가 '큰며느리'에게 가정을 맡기는 데에서, 전통적 부인의 삶과 서모의 삶이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묵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氣)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기와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양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씨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생(貴生)'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씨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일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先王)들의 음악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 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성 음악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음악들 중의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예술 사조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사조이다.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 음악의 체계가 상실된 것이며, 이는 곧 '무조 음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 버렸으며, 사명을 띠고 [한 이념]을 부르짖는다."

무조 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작품 '㉢달에 홀린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인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이 곡의 성악 성부는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악보에 음표를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음표에 ×표를 하여 연주할 때에는 음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선율'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피에로로 분장한 낭송자가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는다. 또한 기악 성부는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이 곡은 무조적 짜임새를 기본으로 하여,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성악 기법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색채적 음향 등을 통해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16.**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공통점 | ○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 ····· ⓐ<br>⋮ |
| 차이점 | ○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함. ····· ⓑ<br>○ (나)와 달리 (가)는 음악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함. ····· ⓒ<br>⋮ |

| | ⓐ | ⓑ | ⓒ |
|---|---|---|---|
| ① | 적절 | 적절 | 적절 |
| ② | 적절 | 적절 | 부적절 |
| ③ | 적절 | 부적절 | 적절 |
| ④ | 부적절 | 적절 | 적절 |
| ⑤ | 부적절 | 부적절 | 부적절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7.** ㉠에 제시된 음악에 대한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은 적절하지 않은 음악이 된다.
② 훌륭한 음악은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어른과 어린아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③ 사람이 음악을 즐기는 것은 선천적인 욕구에 따른 것이니 음악은 사람이 억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음악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면 마음이 쾌적해진다.
⑤ 쾌활한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슬픈 곡조의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슬픈 감정의 상태에 이르는 법이다.

**18.** (가)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노자(老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는 데 욕구가 방해가 된다고 보고, 현실 속 음악을 거부하였다. 그에게 최고의 음악은 우주의 근원인 도(道)의 모습을 닮아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이었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 장자(莊子)는 노자와 같이 음악을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음악을 천지 만물의 조화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음악이 인간의 삶에서 결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그는 의미 있는 음악이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본을 두면서도 형식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선왕(先王)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① 노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② 노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되었다는 데 긍정적이었겠군.
③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선왕들의 음악에 대해 긍정적이었겠군.
④ 장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음악에 대한 묵자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⑤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만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음악을 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겠군.

**19.** [한 이념]의 실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성에서 벗어난 무조적 짜임새로 표현하는 것
② 음계를 구성하는 7개의 음을 사용한 화음들로 표현하는 것
③ 사회 비판과 풍자를 가사에 담아 정확한 음높이로 표현하는 것
④ 불협화음을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하여 표현하는 것
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

**20.** ㉡의 관점에서 ㉢을 비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표로 표시된 말하는 성악 선율은 주관적인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② 피에로 분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것은 음악 외적인 것이 개입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다양한 악기의 배합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것은 색채적 음향으로 무조적 경향을 깨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④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는 것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성 음악의 체계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일부만을 가사로 사용한 것은 전체 작품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1.** 다음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질문하기 |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 ↓ | |
| 탐색하기 |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 찾기 |
| ↓ | |
| 분석적 읽기 | (가), (나)를 읽고 주제, 관점, 내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하기 |
| ↓ | |
| 재구성하기 |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재구성하여 글로 쓰기 |

① 두 글은 모두 음악이 구조적인 기본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작품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내가 작곡할 때에도 적용해 보아야겠다.
②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제시하였다. 감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③ 두 글은 좋은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람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④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
⑤ 두 글은 시대적 상황이 음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책 읽기를 실천해야겠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씌어 있다.



[사진]
추철회시문다완(萩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룸 다 도듯가
주목지 호고려 님 지슘 딩겨ᄉᆞ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좀즘ᄒᆞᄂᆞ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나)**

개야 즛지 마라 밤 ᄉᆞ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걸이 님 츄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걸의 집 갠지 듯고 좀좀ᄒᆞ더라

* 두목지 :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츄심 단니노라 : 찾으러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 (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 임 오면은 꼬리를 홰홰 치며 치뛰락 내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임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얄밉고 잦미우랴
낯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회회 치며 반겨라고 내달아 요리 납작 조리 갸웃하되 낯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발을 뻗디디고 콧살을 찡그리고 이빨을 엉성거리고 컹컹 짖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어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 작자 미상, 「살구」 -

이상과 같은 변모의 사례들에서는 앞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표기·표현·주제·양식 등에서 다양한 변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모는 이본, 작품, 갈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본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양식 등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작품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주제 등이 바뀌어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작품과 다른 양식에 근거하여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갈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즛지 마라'라고 한 것은 '밤 ᄉᆞ람'이 개가 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군.
②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군.
③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두목지 같은 호걸'로 풀이되어 '호걸'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드러내는군.
④ 종장의 '좀좀ᄒᆞ더라'는 '호걸'이 '님 츄심'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는군.
⑤ 중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즛지 마라'라고 부탁한 이유를, 종장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3.** '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와 (다)의 개는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
②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시어에 의해 개와 화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환기되고 있다.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개의 반응이 다른 데서 시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④ (나)의 개는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다)의 개는 화자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⑤ (나)의 개가 상황이 변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면, (다)의 개는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24.**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변모의 양상을 ⓐ~ⓒ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한 것은?

| | ⓐ | ⓑ | ⓒ |
|---|---|---|---|
| ① | (가)→(나) | (나)→(다) | (다)→(라) |
| ② | (가)→(나) | (다)→(라) | (나)→(다) |
| ③ | (나)→(가) | (나)→(다) | (다)→(라) |
| ④ | (나)→(가) | (다)→(라) | (나)→(다) |
| ⑤ | (다)→(라) | (나)→(다) | (가)→(나) |

**25.**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임'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임'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겠군.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처 사람'과 '집안사람'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려.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려.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헝겊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A]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B]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홍분했네'의 뜻임.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② ㉡: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③ ㉢: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④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⑤ ㉤: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8.**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린아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② 어린아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③ 어린아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④ 어린아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⑤ 어린아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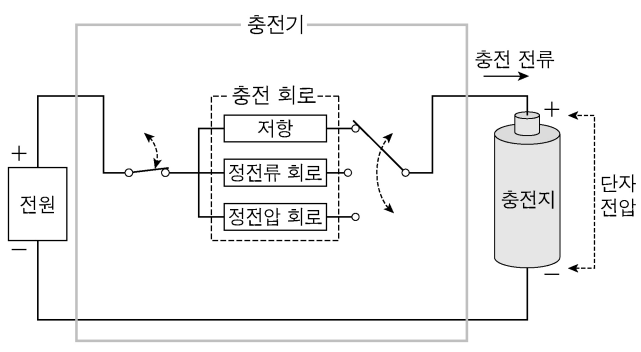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는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납 충전지, 니켈 충전지, 리튬 충전지로 나눌 수 있다. 충전지가 방전될 때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 간에 전위차, 즉 전압이 발생하는데,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이라 한다.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 충전 용량과 방전 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공칭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납 충전지의 공칭 전압은 2V, 니켈 충전지는 1.2V, 리튬 충전지는 3.6V이다.

충전지는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상태를 만충전이라 한다. 최대 용량을 넘어서 충전하는 과충전이나 방전 하한 전압 이하까지 방전시키는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 양을 측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충전 시에는 발열로 인해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니켈 충전지의 일종인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충전지로 유입되는 전류를 저항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여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충전기에는 충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도록 하는 정전류 회로가 사용된다. 또한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로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해도 출력되는 전압이 일정하도록 해 준다. 리튬 충전지를 충전할 경우, 정전류 회로를 사용하여 충전하다가 만충전 전압에 이르면 정전압 회로로 전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충전지에 공급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충전지 내부에 리튬 이온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한다.

충전지의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최대 충전 시간 방식에서는, 충전이 시작된 후 완전 방전에서 만충전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전류 적산 방식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충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각각의 값에 측정 시간 간격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이 충전지의 충전 용량에 이르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서는 충전지의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다. 충전지에 충전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이 시작되어 단자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 충전양이 만충전 용량의 약 80%에 이르면 발열량이 많아져 단자 전압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단자 전압이 다소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을 만충전에 도달했다고 추정하여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니켈카드뮴 충전지의 경우는 단자 전압의 강하를 검출할 수 있으나 다른 충전지들의 경우는 이러한 전압 강하가 검출이 가능할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단자 전압, 최대 온도, 온도 상승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측정된 값이 그 기준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과충전을 방지한다.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과충전은 충전지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② 방전 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낮을 수 있다.
③ 정전압 회로에서는 입력되는 전압이 변하면 출력되는 전압이 변한다.
④ 전극의 물질을 바꾸어도 충전지의 평균적인 단자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⑤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기를 반복해도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31.** 다음은 리튬 충전지의 사용 설명서 중 일부이다. 윗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유의 사항**

○ 충전지에 표시된 전압보다 전원 전압이 높은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①
○ 충전지에 표시된 충전 허용 전류보다 충전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 ②
○ 충전지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충전을 중지해야 합니다. ····· ③
○ 충전지를 사용하다가 수시로 충전해도 무방합니다. ····· ④
○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 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2.** <보기>는 윗글을 읽은 발명 동아리 학생들이 새로운 충전기 개발을 위해 진행한 회의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부장: 충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충전 중단 방식이 지닌 장점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 1: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을 사용할 경우,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과충전 상태에 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원 2: 전류 적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충전 전류가 변할 때보다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에, 추정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장: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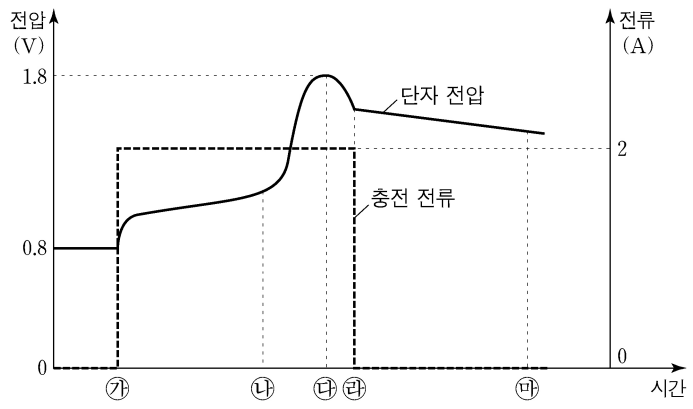
부원 3: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전압 강하를 검출하는 방식은 여러 종류의 충전지를 두루 충전하는 충전기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원 4: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온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는 주변 환경이 충전지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준다면 충전 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원 5: 지금까지 논의한 방식은 모두 충전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면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① 부원 1의 의견 ② 부원 2의 의견
③ 부원 3의 의견 ④ 부원 4의 의견
⑤ 부원 5의 의견

**33.** 다음은 어떤 충전지를 충전할 때의 단자 전압과 충전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either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는군.
② ㉯: 충전 전류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군.
③ ㉰: 단자 전압이 최대에 도달했으므로 만충전에 이르렀군.
④ ㉱: 정전류 회로가 작동을 멈추고 전원이 차단되었군.
⑤ ㉲: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방전이 되고 있군.

**34.**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그 사람에게 그런 식은 안 통한다.
ⓑ: 전깃줄에 전류가 통한다.

② ⓐ: 그와 나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 청년기를 통해 노력의 중요성을 익혔다.

③ ⓐ: 이 길은 바다로 가는 길과 통해 있다.
ⓑ: 모두 비상구를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④ ⓐ: 이곳은 바람이 잘 통해 빨래가 잘 마른다.
ⓑ: 그런 얄팍한 수는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⑤ ⓐ: 철저한 실습을 통해 이론을 확실히 익힌다.
ⓑ: 망원경을 통해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1 교시

#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뾰족구두', '높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높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 ① | 먹고살다 | 새색시 |
| ② | 뛰놀다 | 먹거리 |
| ③ | 갈라서다 | 척척박사 |
| ④ | 걸어오다 | 큰아버지 |
| ⑤ | 빛나다 | 돌다리 |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 만에 만났다.
ⓑ 바깥에 오래 있었더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① ⓐ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② ⓑ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③ ⓒ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 합성어이겠군.
④ ⓓ의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먹다'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⑤ ⓔ의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영 : 내일이 방송부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날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진수 : 너무 걱정 마. 내가 대본에다가 발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표시해 봤어. 확인해 봐.

〔방송 대본〕
어제는 책을 열심히 ㉠ 읽는[잉는] 친구에게 선물할 책을 사려고 ㉡ 서울역[서울력] 안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 복잡한[복짜판] 인파를 헤치고 서점 ㉣ 깊숙이[깁쑤기] 들어가서 친구에게 줄 시집을 드디어 찾아냈지요. 시집을 펼쳐 마음에 드는 시를 ㉤ 읊다가[읍따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수영 : 그런데 왜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수 : 맞아. 각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모두 살펴보면, [A]
수영 : 그렇구나. 고마워.

① ㉠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돼.
② ㉡에서는 한 번의 첨가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돼.
③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복짜판]으로 발음돼.
④ ㉣에서는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깁쑤기]로 발음돼.
⑤ ㉤에서는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읍따가]로 발음돼.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과 보조 용언을 사용하는 긴 부정문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하죠? 그런데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긍정문을 단순히 부정하는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시된 조건에 맞게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 보겠어요.

| 조건 | | 부정문 |
|---|---|---|
| 짧은 부정문, 능력 부정 | ➡ | 동생은 발을 다쳐 등산을 못 갔다. |
| 긴 부정문, 단순 부정 | ➡ | ㉠ |

①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안 왔다.
②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닫지 않았다.
③ 심한 어지럼증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④ 나무가 많아 여기는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다.
⑤ 충치 때문에 탄산음료는 당분간 못 마시게 되었다.

**39.** <학습 활동>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학습 활동>

**〔자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u>나랏</u> 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쫑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빅姓셩이 니르고져 홇 ㉡<u>배</u>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u>ᄠᅳ들</u> 시러 펴디 몯ᄒᆞᆷ ㉣<u>노미</u> 하니라 내 ㉤<u>이를</u> 爲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듧 字쫑를 밍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히ᅇᅧ 수ᄇᆡ 니겨 날로 ᄲᅮ메 便뼌安한킈 ᄒᆞ고져 ᄒᆞᆯ ᄯᆞᄅᆞ미니라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활동 결과〕**

[A]

① ㉠을 보니, 'ㅅ'이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기능을 하는군.
② ㉡을 보니, 'ㅣ'가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기능을 하는군.
③ ㉢을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성 글자가 나란히 쓰였군.
④ ㉣을 보니, '놈'이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군.
⑤ ㉤을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양성 모음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군.

**[40~42] (가)는 종이 신문이고, (나)는 (가)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3면 2020년 2월 △△일 목요일 사 회 제2456호 ○○신문

## 넘치는 '가짜 뉴스' … 사실 왜곡과 사회적 갈등 유발 심각

누리소통망 통해 빠르게, 널리 퍼져
'사실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되기도



지난 2월 ○○일 ○○에서는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기자

㉠<u>'가짜 뉴스'가 날로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u>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 누리소통망의 발달 등 매체 환경의 변화가 가짜 뉴스의 파급력을 크게 키웠다는 분석이다.

○○에서는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u>토론 과정에서 매체 환경의 변화로 특히 뉴스의 생산과 유포 양상이 바뀌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u>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u>미국의 △△ 기관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에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u> ㉣<u>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가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u>

㉤<u>이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가짜 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u>

언론은 정확하고 수준 높은 보도를 하고, 언론 소비자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기자 kimt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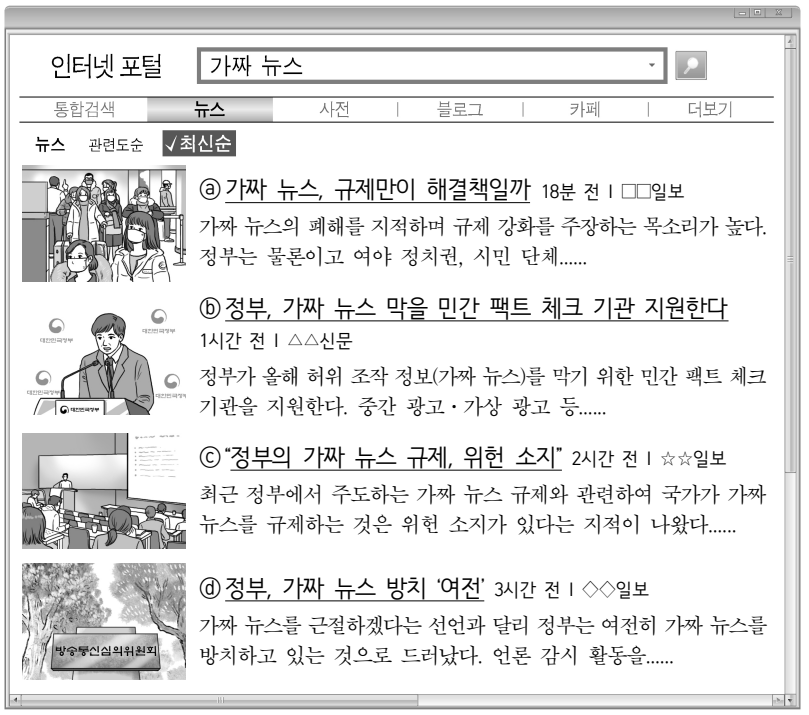
### 세계 도시 63% 하계 올림픽 개최 곤란
2050년… "지구 온난화 영향 탓"

[redacted]

### 미세 플라스틱, 1주에 신용카드 1장 삼켜

[redacted]

**(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② (가)와 달리 (나)는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현도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이 된다.
③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에 차이가 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한 면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할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의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다시 게이트 키핑을 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요.

①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관련 기사를 '지구 온난화'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② (가)의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가 (나)에 없는 것은 입력된 검색어와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게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③ (나)의 ⓐ~ⓓ를 생산한 언론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복수의 언론사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④ (나)의 ⓐ는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는 정부의 정책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나)의 ⓒ, ⓓ 기사를 낸 각 언론사들은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할 때 서로 입장을 달리한 것이겠군.

**42.**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고 있다'를 써서 기사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표현하였다.
② ㉡: 피동 표현을 통해 '지적'한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지적'된 내용을 기사에 제시하였다.
③ ㉢: 직접 인용 표현을 써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기사에서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
④ ㉣: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인과 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내었다.
⑤ ㉤: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내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정민'이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PM 10:15 80%

조 모임 대화방(4명)

정민 : 발표에 대해 상의하려고 대화방 열었어.

보미 :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윤영 : 더 상의할 게 남았어? ㉠ 학교에 생긴 학습 공간 <글벗>에 대해 발표하기로 하고, 자료 조사 역할도 나눴잖아.

정민 : 발표 자료 제작 방안에 대해 얘기 좀 하려고.

상호 : 완전 동의. ㅋㅋ 발표 자료는 정민이가 만들기로 했어도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지는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좋겠어.

보미 : 일단 각자 조사한 거 얘기해 보자.

윤영 : ㉡ 난 <글벗>의 공간 구성을 조사하기 위해 도면을 구했어. 도면에 나타난 공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선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 동영상도 촬영! 상호야! <글벗>의 제도적 배경은 정보가 별로 없던데, 조사됐어?

상호 : <글벗>은 학교 공간 혁신 차원에서 도입된 거잖아. 그래서 ㉢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 추진 방향, 연도별 시행 상황을 조사했는데 줄글로 된 자료밖에 못 구했어. ㅜㅜ 연도별 시행 상황은 시행 학교 수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는 거라 그래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정민 : 자료 어디서 찾았어? 링크 좀 걸어 줘.

상호 : 여기 주소! http://www.△△△.kr

보미 : 나는 <글벗>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만족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정리해 봤어. 그리고 학생들이 <글벗>을 이용하는 사진도 찍었어. 여기 찍은 사진 공유~

사진 파일 전송 : 글벗 이용 모습.JPG(4MB)

윤영 : 오! <글벗> 이용 모습이 잘 드러나네. ^^

정민 : 사진 잘 찍었다. 조사한 내용들은 모두 나한테 보내 줘. 이제 발표 자료 어떻게 만들지 얘기해 보자.

윤영 : ㉣ 발표 자료에 담을 내용은 <글벗>의 공간 구성과 활용 방법,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 학생들의 이용 모습과 반응이네.

보미 : 발표 자료는 발표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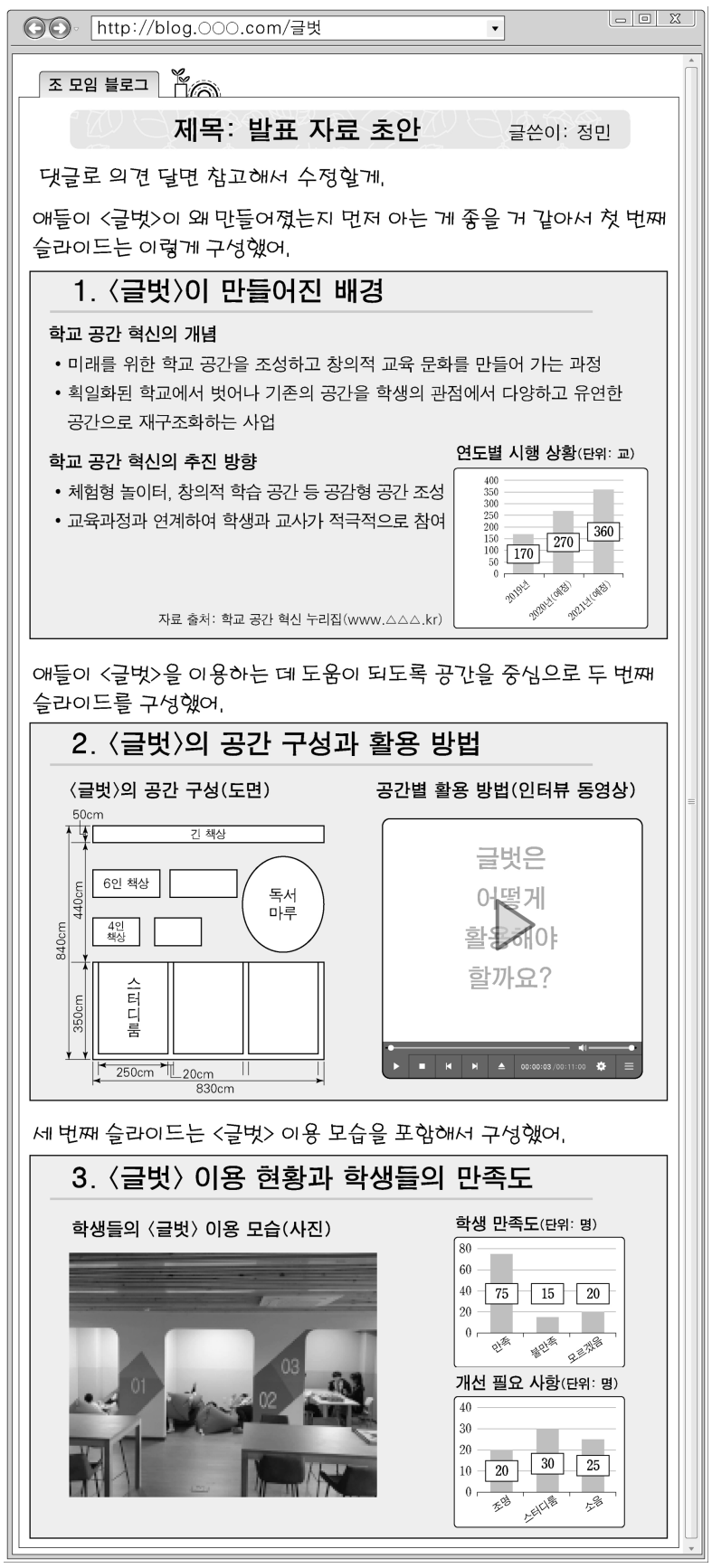
상호 : ㉤ 도면, 동영상, 사진, 그래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ㅎㅎ

정민 :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종합해서 초안 만들게. 초안은 토요일까지 조 모임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확인하고 댓글 달아 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나)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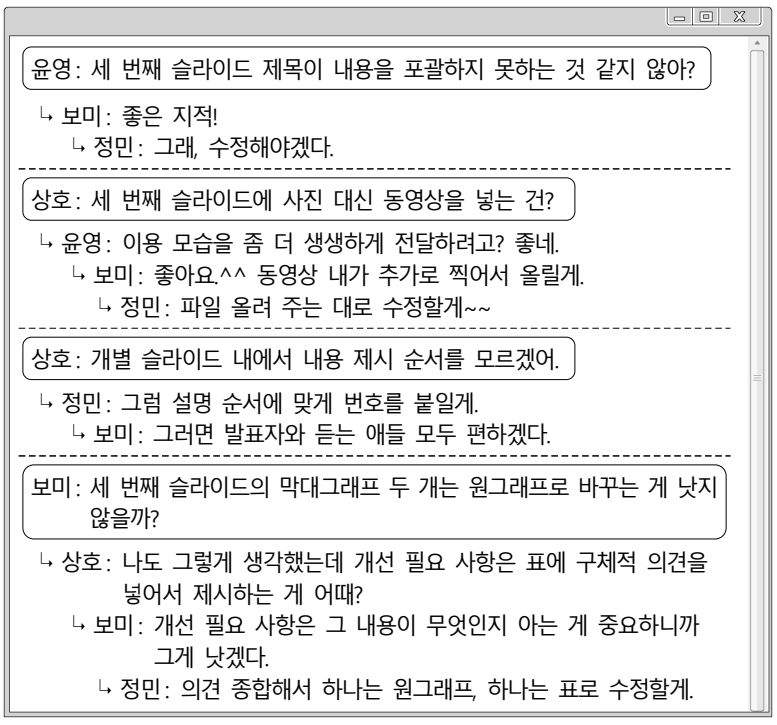
① '상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② '정민'은 휴대 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점을 거론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윤영'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④ '보미'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⑤ '정민'과 '상호'는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을 바탕으로 '정민'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① ㉠에서 언급된 학습 공간의 명칭을 제목에 일관되게 포함하여 각 슬라이드 상단에 배치해야겠군.
② ㉡에서 언급된 두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앞뒤 슬라이드에 연속적으로 배치해야겠군.
③ ㉢에서 언급된 자료 중 연도별 시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로 바꿔서 제시해야겠군.
④ ㉣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하여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겠군.
⑤ ㉤에서 언급된 자료를 문자 언어와 함께 배치하여 발표 내용을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해야겠군.

**45.** <보기>는 (나)에 달린 '댓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